



“잘 싸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26일 낮 제2회 월드컵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야구 대표팀을 청와대로 초청해 베포 오찬에서 선수들과 건배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용규선수, 김인식 감독, 이 대통령, 김태균 선수. /연합뉴스

김동철의원 3억6천만원으로 최다 강기정 2위...강운태 8천만원 최소

■지역 국회의원 작년 후원금 분석

2008년도 국회의원 후원금을 집계한 결과, 광주·전남지역에서는 민주당 김동철 의원이 3억6천15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강기정 의원이 3억673만원으로 2위, 이낙연 의원이 3억485만원으로 3위, 김성곤 의원이 3억1천원으로 4위를 각각 기록했다.

반면, 무소속 강운태 의원이 8천166만원으로 가장 낮았고 김영진(1억3천224만원), 이윤석(1억3천348만원), 박주선(1억4천611만원) 의원 순으로 모금액수가 적었다.

중앙선관위가 26일 공개한 ‘2008년도 정당·후원회 등의 수입·지출 내역’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국회의원 후원회의 모금액은 634억원으로 2007년도(414억원)보다 220억원 증가, 역대 최대액을 기록했다. 후원회 당 평균모금액은 2억1천만원으로 2007년(1억3천만원)보다 8천만원 정도 증가했다.

2008년도에는 국회의원선거가 열려 지역구에 후보자로 등록된 국회의원후원회의 경우 연간 한도액의 2배인 3억원까지 모금할 수 있었다. 3억원을 초과한 모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해 사용하면 된다.

소속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2007년(208억원)보다 192억원 증가한 4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야당으로 추락한 민주당은 174억원으로 2007년(179억원)보다 5억원, 민주노동당은 10억원으로 2007년(12억원)보다 2억원 각각 감소했으며, 자유선진당은 27억원, 창조한국당은 2억5천만원, 친박연대는 2억5천만원을 각각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대상인 300만원 이상 고액기부도 한나라당이 87억원으로 전체의 70.1%를 독식했다. 민주당은 29억원(23.4%), 자유선진당은 3억원(2.5%), 친박연대와 창조한국당이 각 3천만원(0.3%), 무소속이 4억1천만원(3.4%)이었다. 반면, 민주노동당은 고액기부가 없었다.

개인별 모금액의 경우 한도인 3억원을 채운 의원은

■2008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액

지역	의원명	후원금 모금액
광주	동구	박주선 1억4천611만원
	서구갑	조영택 1억5천513만5천원
	서구을	김영진 1억3천224만원
	남구	강운태 8천166만원
	북구갑	강기정 3억673만원
	북구을	김재균 1억5천251만원
광산구	김동철	3억6천15만원
	이윤석	2억366만9천원
전남	목포시	박지원 2억9천785만8천원
	여수시갑	김성곤 3억1천원
	여수시을	주승용 2억6천518만5천원
	순천시	서갑일 2억3천477만원
	나주	최인기 2억9천99만원
	광양시	우은근 2억9천719만원
담양·곡성·구례	김영석	1억9천659만5천원
	고흥·보성	박상천 1억5천918만원
	장흥·강진·영암	유선호 2억1천811만원
	해남·완도·진도	김영록 1억8천596만원
	무안·신안	이윤석 1억3천348만원
	함평·영광·장성	이낙연 3억485만원

무려 55명에 달했다. 한나라당 박근제 전 대표가 3억6천183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 민주당 김동철 의원,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3억4천562만원),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3억4천363만원)이 뒤를 이었다.

특히 상위 20등에는 한나라당 의원이 14명이나 포함됐고, 민주당 의원은 5명, 민주노동당은 권영길 의원이 유일했다. 반면 하위에서는 민주당 신낙균(122만원), 선진당 박선영(529만원), 친박연대 김동(959만원)의원 순으로 모금액수가 적었다.

한편, 정당별 재산총액은 한나라당이 512억원, 민주당 43억원, 민노당 24억원, 선진당 2억6천만원이었으며 친박연대 및 창조한국당의 경우 각각 5억원과 54억원의 채무가 신고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전남지역 투자 실현 왜 늦어지나

부지 매입·행정 절차 2~3년 소요

경기 침체·대출 규제 등 투자환경 크게 악화

도, 금융기관 참여 맞춤형 지원 협의회 운영

■연도별 MOU 실현 현황

구분	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계	437	17(4%)	69(16%)	68(16%)	85(19%)	198(45%)
실현	198(45%)	16(94%)	43(62%)	40(59%)	43(50%)	56(28%)
미실현	239(55%)	1(6%)	26(38%)	28(41%)	42(50%)	142(59%)

전남도가 기업 1천 개 투자유치를 목표로 기업 유치에 열을 올리면서 전남지역에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투자협약(MOU)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기업들의 실제 투자는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

경기 불황 탓도 있지만, 투자 실현이 늦어지는 것은 MOU 체결 이후 부지매입·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 등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경기침체로 투자 분위기 위축=전남도가 지난해 1년 동안 투자유치를 이끌어 낸 기업은 모두 198개, 전년 85개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괄목할 만한 실적이다. 하지만, 실제 투자 기업은 56개에 불과했다. 투자유치에 역점을 두고 협약에는 성과를 거뒀지만, 전반적인 경기 불황과 대출 규제에 따른 기업들의 투자환경이 크게 악화되면서 투자 실현율이 다소 저조해진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의 경우 광주은행과 농협 등을 상대로 투자유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상품을 개발토록 해 관련 상품이 시판중이지만, 실제 대출 과정에서는 담보 등의 제한으로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일부 제조업체들은 최악의 소비침체가 이

어짐에 따라 생산 가동 시점 등을 저율하고 있는 것도 투자 활동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유로 꼽히고 있다.

◇실제 투자 왜 늦어지나=투자협약 체결 이후 실제 투자가 늦어지는 것은 기업들이 부지매입, 행정절차, 자금조달 등의 문제로 상당한 시간을 소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부지매입이다. 부지를 매입한 뒤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들의 투자 실현율은 높은 편이지만, 부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협약부터 맺은 기업들의 투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MOU 체결 이후 1차 년도에 부지매입을 비롯한 공장설립 준비에 착수하더라도 2차 년도에는 금융권 대출 등 자금조달에 시간을 많이 허비하기 일쑤여서 실제 투자실현까지는 2~3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일부 기업들이, 투자협약의 상대방인 자치단체가 부지 매입비 등 초기비용을 줄여주고 또 주민들의 각종 민원을 정리해주길 은근히 기대하며 '눈치'를 보는 것도 실제 투자가 빠르게 진행되지 못하는 이유로 꼽히고 있다.

◇MOU 체결 기업 후속 조치 강화=전남도는 MOU 체결기업의 투자 실현율을 높이기 위해 금융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맞춤형 공동지원 협의회(협의회)를 오는 4월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금융지원분과 ▲행정지원분과 ▲용역지원분과 등 3개 팀 16명으로 구성되며, 이전 기업들의 주요 애로사항인 PF 및 여신지원·신용보증 지원 협의를 비롯해 정책자금·고용 지원, 설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전남도는 최근 기업유치에 가장 필요한 부지 매입 등을 돕기 위해 전남도내 22개 시·군에 기업유치 지원 관련 개별 입지조사를 마쳤다. 그 결과 폐교, 유·폐업 공장 부지, 개발부지 등 총 385개소(2천155만5천여㎡)를 선정, 유치 기업들에게 맞춤형 부지 지원 등의 서비스를 할 방침이다.

전남도 교영은 기업유치과장은 "기업유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부지매입 여부"라며 "기업들은 땅값을 조금이라도 싸게, 그리고 이전 시기에 맞게 매입할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부지매입 여부가 투자유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라고 말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한·EU, 쌀·고추·마늘 현행 관세 유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관련해 “쌀은 물론 고추, 마늘, 양파 등도 현행 관세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 “(이들 품목의 경우) EU가 관심이 있는 품목은 아니지만 우리는 중요하므로 전반적으로 민감성을 반영하고자 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한·EU FTA의 마지막 쟁점 중 하나인 관세환급 문제에 대해 “EU 시

장에서 우리와 경쟁하는 나라들이 이 제도를 갖고 있고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인정한다는 점, 이미 수십년 전에 도입돼 경쟁여건에 반영돼 있다는 점 등을 들어 (EU를 설득하고 있는데 좀 더 얘기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EU FTA 타결이 한·미 FTA 비준에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 김 본부장은 “미 의회의 논의동향을 보니 그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미 FTA 처리와 관련한 한·미 통상당국 간 협의의 시기에 대해 그는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취임했지만 부대표 등에 대한 청문회가 남아 있는데다 미국이 급박한 경제현안이 있다보니 찬찬히 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시간은 좀 주게 좋겠지만 너무 지연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한·미 FTA가 서명되고 2년 가까이 지나다 보니 많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상황이 이렇게 복잡하고 혼란스러우면 정식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본다”면서 “비준 동의는 준비된 나라부터 가야만 뒤따라 오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택시요금도 카드로!!

광주광역시 공식지정 브랜드 택시

광주 Ncall 엔콜

1688-3336

● 소비자보호센터에 문의

- ▶ 예약서비스: 고령자, 장애인, 시골로 갈 때는 택시 호출 서비스
- ▶ 카드결제 서비스: 전·신용카드 및 교통카드(신한카드)로 결제가능

분류코드/전화번호 승무원번호 승무원명

1688-0287 1688-5500 1588-0848